

이름 바꾼지 20년...장희수 “거울 앞에 선 영원한 소쩍새”

연예계 코로나 19 직격탄...시청자들에 희망 · 용기 주고파

“쏟아진 지나간 40년 무대 인생...아직도 마음은 청춘”

‘엔터테이너’로 분류되기는 하나 최종 목적지는 ‘연기’

“코로나19의 세찬 바람이 연예계로도 들이닥쳐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연기로 용기와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1년 미스롯데 5기로 뽑힌 뒤 그해 KBS 공채 8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배우 장희수(57)는 올해로 연기생활 40년째다.

2000년 ‘장순천’에서 ‘장희수’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한 지는 꼭 20년이다.

그동안 100편 이상의 TV드라마, 영화, 연극에 출연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신중현으로 완숙한 연기의 경지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초부터 연예계에도 천바람이 엄습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극 무대마저 얼어붙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배우들은 설 자리를 빼앗기다시피 했다.이 와중에도 장씨는 JTBC 미스터리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서 대형병원의 의료법인의 이사장 역을 맡아 남자처럼 터프한 이혼녀 캐릭터를 소화해 냈다.

게다가 최근 TV홈쇼핑 프로그램에 모델로 출연하기까지 했으니 매사 감사할 따름이다.

25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서너살배기 남매를 등에 업고 나와 손이 부러터가며 살림을 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셰익스피어의 말 그대로 역적같이 살아 왔다.

오로지 아이들 만 떠올리며 일을 하고 파김치가 된 채 돌아오는 딸을 안쓰러워하며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몸 좀 돌봐라”던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해 하늘나라로 떠났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나이 먹었어도 고아다.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기만한 요즘이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26)은 내년이면 일본 도쿄의 명문 호세이대학을 졸업한다.

여름방학을 마친 연년생 딸은 곧 다시 영국으로 간다. 자녀 둘을 모두 유학시킨다? 강해도 보통 강한게 아닌 어머니, 장희수다.

장씨의 꿈도 외교관이었다.

학창시절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이루지 못한 슬픈 꿈이다. 그래서 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엄마가 해 내야 할 몫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겠다며 이를 악물고 있다.

4년 전 아들이 유학을 가기 전 육군사관학교로 데리고 갔다.

초대 육사 교장과 합참의장을 지낸 아들 할 아버지를 보여주며 뿌리를 잊지 말라고 주입하고 싶었다.

육사기념관에 전시된 할아버지의 지휘봉과 나라를 지키는 기개가 느껴오는 사진들을 마주한 손자는 금치 넘치는 청년이 됐다.

장씨는 “TV순자병법”, ‘해를 품은 달’,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등 훌륭한 인기드라마에서 활약했다.

1986년 MC 허참과 함께 KBS라디오 ‘한낮의 공개소’와 1992년 ‘즐거운 저녁길’, ‘뽀빠이’ 이상용과는 ‘위문열차’와 교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장씨를 아나운서로 착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부터 연기자다. 만능엔터테이너로 분류되기는 하나 최종 목적지는 연기다.

“이순재·나문희 선생님처럼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연기자가 되는 걸 극구 반대한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어머니, 그리고 남은 두 남매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예계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예외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도 굴곡이 있듯이 배우들에게도 무대의 화려함 뒤에 어두움이 있



게 마련”이라는 자세다.

결국 스스로와 처절하고도 고독한 싸움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우의 숙명을 그녀는 이렇게 수용한다.

다시, 미당(未堂)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기까지 장희수는 소쩍새처럼 불부터, 천둥과 먹구름 속에, 무서리를 참으며 울었다.

자기 얘기 같다. 앞으로도 이 시를 읊으며 소쩍새처럼 울겠다는 각오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선배 연기자들도 코로나를 비껴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무대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SNS에 ‘올해는 세금 낼 게 한푼도 없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합니다”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신용재단이나 신용협동조합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쫓는다.

1984년 대한민국연극계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장희수는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렵다.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문화예술의 힘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저희를 아껴주신다면 문화예술인들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식스센스’ 정철민 PD “기획 단계부터 유재석 생각”

오늘 오후 9시 첫 방송



‘식스센스’ 정철민 PD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유재석을 염두에 뒀다고 고백했다.

3일 오후 9시 첫 방송되는 tvN ‘식스센스’는 다섯 명의 멤버와 매주 한 명의 게스트, 총 여섯 명이 이색적인 주제의 장소나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오감을 뛰어넘는 육감을 발휘해 진짜 속에서 가짜를 찾아내는 ‘육감 현혹 버라이어티’다.

그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호흡을 맞춘 유재석과 정철민 PD의 재회작으로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가 고정 멤버로 출연을 확정 지으며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 PD는 2일 “유재석과 통화를 하다가 생각해보니, 방송인들이 실질적으로 방송 외에 어딘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요즘 핫한 사람이나 장소 등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며 “나는 물론이고, 멤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기획에 녹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특이한 식당이나 특이한 사람 위주로 포인트를 잡게 됐고,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세 가지 보기 중 한 곳은 가짜라는 예능적 상황을 넣게 됐다”며 “출연진들의 심리 구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직접 뛰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판에 실질적 불거리를 가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식스센스’가 탄생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든 메인 MC로는 유재석을 떠올린다. “유재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며 “저와 유재석은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일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도 잘 된다. ‘식스센스’도 기획 단계부터 유재석을 생각하게 됐고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낯설지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내서 섭외하는 걸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정 PD는 “오나라 역시 작품을 보며 ‘저분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예능에 출연한 모습을 보니 독특한 자기만의 매력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성 강한 전소민, 제시, 미주를 잘 이끌어 줄 수 있으면서 도 세 명과 결이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다. 설득 끝에 오나라가 첫 고정 예능 출연을 확정 지으면서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소민은 저와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잘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걸 알아서 섭외했다. 제시는 다른 예능에서 게스트로 몇 번 빈 걸과, 걸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어린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면 배려심 넘치고 약간은 소신한 제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미주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해 섭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첫 회 게스트 이상엽에 대해서는 “이상엽은 잘생긴 비주얼과 좋은 연기력 등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편안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누구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게 편해지고, 친해질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성 강한 ‘식스센스’ 멤버들과 금방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PD는 “여기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싶을 정도로 디테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멤버들이 어떤 케미를 만들어나갈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유재석이라는 MC가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내며 이끌어갈지 노력하는지를 주목하면 첫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월화극 ‘펜트하우스’, 초특급 라인업 공개



‘펜트하우스’가 SBS 새 월화극으로 하반기 편성을 확정했다.

2일 ‘펜트하우스’ 측은 하반기 방송 소식과 함께 이지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윤종훈, 박은희, 윤주희 등 캐스팅을 알렸다. ‘펜트하우스’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윈’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는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약녀가 될 수밖에 없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역대급 몰입도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 화두인 부동산과 교육을 다룬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한다.특히 이지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등 이목을 집중시키는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총출동해 초특급 라인업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독창적인 소재와 휘말리치는 폭풍 전개로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김소연 작가와 ‘리턴’, ‘황후의 품격’ 등 주몽민 PD가 ‘황후의 품격’ 이후 다시 의기투합했다.

이지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기품 있는 상류층 ‘심수련’ 역을 맡았다. 2년여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이지아는 비밀스런 사연을 지닌 명실상부한 펜트하우스 퀸으로서 색다른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김소연은 타고난 금수저로 화려함과 도도함의 결정체인, 완벽한 프리마돈나 ‘천서진’ 역을 통해 비틀어진 욕망으로 점철된 면모를 드러낸다. 유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부유해본 적이 없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오윤희’ 역으로 등장.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상류사회로 입성하려는 지독한 모성애를 그려낸다.

또 엄기준은 사업과 부동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져 투자하는 사업마다 돈을 쓸어 모으는 부동산의 귀재 ‘주단태’ 역으로 심수련 역의 이지아와 부부 호흡을 맞춘다. 신은경은 비밀스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졸부 ‘강마리’ 역을 맡아 출연한다. 봉태규는 범조인 재벌가 외아들이자 로펌 변호사인 ‘이규진’ 역으로 분해 극강의 마마보이로 활약할 예정이다.

윤종훈은 남자는 돈과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야망남이자 천서진 역의 김소연 남편인 대형 종합병원 VIP 전담 외과과장 ‘하윤철’ 역으로 나서고 박은희는 능청스러운 성격을 지닌 청아예고 체육교사 ‘구호동’ 역으로, 윤주희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변호사인 이규진 역의 봉태규와 결혼해 범조 재벌가에 입성한 ‘고상아’ 역으로 출연한다.

‘핫100’ 1위 방탄소년단 “다음목표는? 그레미 단독 무대”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서 밝혀

“그레미에서 방탄소년단의 단독 무대를 해보고 싶습니다.”(슈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 목표로 그레미 어워드 무대를 꼽았다.

방탄소년단은 2일 오전 빌보드 ‘핫100’ 1위 기념으로 열린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에 향후 목표로 그레미 어워드를 언급했다.

슈가는 “올해 초에 그레미에 가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의 단독 무대를 해보고 싶다”며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일단은 그레미 무대에 서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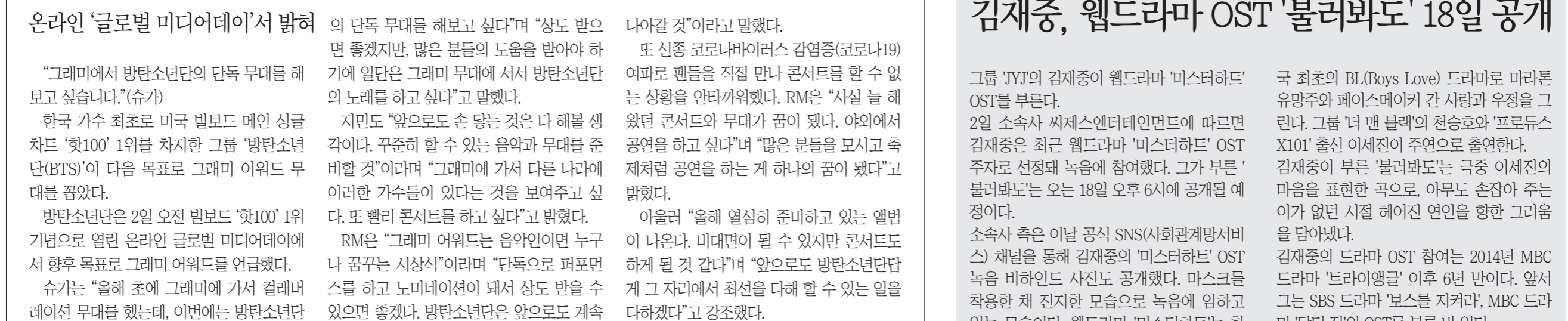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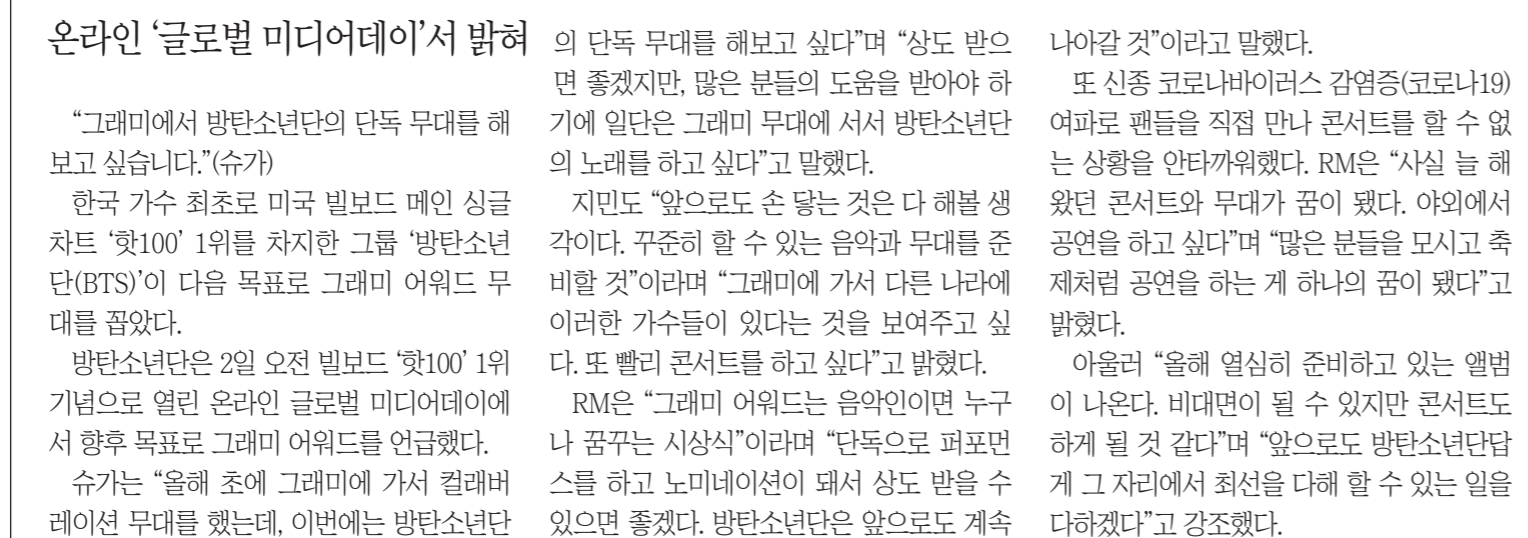
지민도 “앞으로도 손 닿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음악과 무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그레미에 가서 다른 나라에 이러한 가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또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RM은 “그레미 어워드는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시상식”이라며 “단독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노미네이션이 돼서 상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팬들을 직접 만나 콘서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RM은 “사실 늘 해왔던 콘서트와 무대가 끊어졌다.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며 “많은 분들을 모시고 축제를 같이 하는 게 하나의 꿈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 나온다. 비대면이 될 수 있지만 콘서트도 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방탄소년단답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웹드라마 OST '블러봐도' 18일 공개

그룹 'JYJ'의 김재중이 웹드라마 '미스터하트' OST를 부른다.

2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재중은 최근 웹드라마 '미스터하트' OST 주자로 선정돼 녹음에 참여했다. 그가 부른 '블러봐도'는 오는 18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김재중의 '미스터하트' OST 녹음 비하인드 사진도 공개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지한 모습으로 녹음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웹드라마 '미스터하트'는 한국 최초의 BL(Boys Love) 드라마로 마라톤 유망주와 페이스메이커 간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그룹 '더 맨 블랙'의 천승호와 '프로듀스 X101' 출신 이세진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김재중이 부른 '블러봐도'는 극중 이세진의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아무도 손잡아 주는 이가 없던 시절 헤어진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았다. 김재중의 드라마 OST 참여는 2014년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그는 SBS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MBC 드라마 '닥터 진'의 OST를 부른 바 있다.